

사설

참여정부 출범에 부처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 자체가 역대 어떤 대통령과는 남다른 점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장점이 가장 충실히 드러나 묵은 숙제로 남아있던 개혁과제들이 임기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에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실히 구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개혁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되는 올바른 개혁이 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서둘러 나갔다가 그것이

빛은 갈등을 빚어오는 반개혁 세력의 공세에 쉽게 좌초해버리는 개혁은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다. 늦더라도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의 단단한 건축물을 세우듯 하는 개혁이여야 뒤를 이어서 완성되는 빛나는 개혁의 탑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의지를 적절히 중화시키고 다른 포장을 씌워 내놓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가장 선명하게 개혁을 뜻해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지속시키되, 정당한 목표에 정당한 방식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키고 민의를 수렴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아울러 불교계에 대한 공약 사항도, 그것이 불교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성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만해스님 고택 보존 절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살았던 고택이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만해 선사에 대해서는 우리 근현대사에 우뚝 선 인물이다. 독립운동가로서도 민족문화를 개척한 문화인으로서도 그리고 증생교회를 위한 종교인으로서도 당대의 모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를 기리는 우리 후손들의 정성과 노력은 매우 미약했다.

기독교선언서의 공약사항을 기초한 것이며, <님의 침묵>을 집필하는 등 민족의 독립과 증생제도를 위해 활동을 하던 시기에 10여 년간 살던 고택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후손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뜻 깊은 고택을 찾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더욱이 3·1절을 눈앞에 두고 보니 감개가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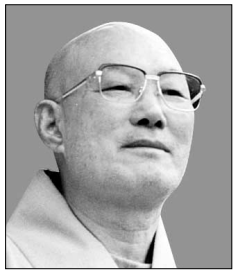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택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이 시급함에도 예산 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이 일에 어찌 예산 따위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현대에 활약했던 인물과 관련된 사적(史蹟)들이 훼손 또는 철거되고 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르다가 만해스님의 고택도 그 꼴이 날까 우려된다.

지난날의 잘못을 갖고 역사 앞에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택 보존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고택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후손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법장스님 총무원장 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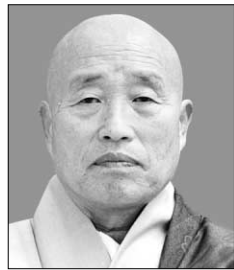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 지혜·초우·혜정·진제 새 의원 선출



◇지혜스님



◇초우스님



◇혜정스님



◇진제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월27일 20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법장스님을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또 지혜(범어사 초우(통도사) 혜정(범주사 진제(해운정사)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조계종 원로의원은 18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지혜스님은 1927년생으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금어선원과 해인사 백련암 등에서 46안거를 성만하고 현재 밀양 대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으며, 초우스님은 1933년생으로 동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주지와 중앙종회 부의장,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도사 부방장으로 있다.

혜정스님은 1933년생으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선의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범주사에서 주석하고 있고, 진제스님은 1931년생으로 석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과 조계종기초선원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에 참석한 14명의 원로스님들은 종단 화합을 위해 98,99년 종단사태의 징계를 사면하라는 내용의 원로회의의 유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현 종헌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원로의원을 두기로 돼 있는 종헌과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원로의원 자격에 대해 70세 이상 23인까지 원로의

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2대 종회 때 상정됐다 자동 폐기된 원로의원 선출과 관련한 종헌 및 원로회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인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또 원로회의는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백지화와 관련해 불교환경단체들이 올린 진정서를 검토하고 총무원과 종회가 함께 대처해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현재 단식농성중인 지울스님을 격려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단과 연대 수행환경 수호”

녹색연합 공동대표 추대된 원택스님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월 22일 녹색연합 대의원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된 원택스님(조계종 중회의원은 “개발로 인해 사찰수행환경의 침해사태가 늘고 있다”며 “불교생태운동 이념이 일반사회에서 빛을 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 백지화 공약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1991년 6월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 창립한 한국 환경운동의 대표적 단체이다. 녹색연합에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7개 지역조직과 9개 시민모임, 환경소송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만여명이다. 김원우 기자

문화관광부장관에 이창동씨



영화감독인 이창동씨가 2월 27일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이창동(49) 문광부장관은 경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전라>로 등단했으며, 영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을 연출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을 주도했으며, 영화 ‘오아시스’로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말 수가 적으나 논리적이고 소신 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19개 부처 장관(급) 가운데 불자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장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명우 기자

청소년불자들 국제교류

‘클럽 25한국모임’ 결성

세계 청소년 불자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임인 ‘클럽25’가 22일 발족한다.

한국 WFBY(The World Fellowship Buddhist Youth Korea)는 2월 22일 준비모임을 갖고, 12~25세 미만 청소년 불자들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단체인 ‘클럽25’ 한국

모임 결성에 들어갔다.

‘클럽25’의 결성은 지난해 말 러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13차 WFBY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날 22일 오후 4시 연등국제회관에서 ‘클럽25’ 한국모임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다.

‘클럽25’ 한국모임 준비위원회(위원장 문상현·외국어대 2년)에는 외국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불자 청소년 25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강유신 기자

김태복장군 끝내 누명 못벗어

상고 기각돼, “제정신청 통해 진실규명”

석탑 시주와 관련 뇌물혐의로 피소된 김태복 장군이 결국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재판장 변재승)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군은 “어이없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그 동안 성원과 기대를 해 준 불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도 “김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제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1999년 2월

군검찰이 경기도 파주시 호국백일사 군법당 불사와 관련,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태복 장군에 대해 뇌물수수, 사기미수 및 횡령전 등 5건을 기소한 것으로 시작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뇌물수수 1건

(이후 현금수수로 공소 변경), 횡령 1건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현금수수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는 절충판결을 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2002년 5월 유죄판결을 내렸고, 김 장군은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동우 기자

출가~열반절 수행주간 선포

조계종포교원 10~17일 신도회·단체별 정진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출가절인 10일부터 열반절인 1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선포하고 각 신도회와 수행단체별로 수행정진을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수행주간으로 정착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정진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도선사, 봉은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구 관음사, 광주 무각사, 수원포교

당, 창원정사 등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교사불자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30여 단체들은 10~17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대법회를 연다. 정진법회는 예불대 참회문 독송, 108배,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문화재보존대책마련을...

현대불교교회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02)737-0698
(02)737-0697
(02)737-0090
110-333
110-170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보살계수계산림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을 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8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제15교구본사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주지 이산 현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기와접수처 : 055)381-1288